★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전하며

★ 경루동의 주인들



조선

주체111 (2022) 7

(793)



차 례 CONTENTS

표 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중심주제조각 《승리》상

뒤표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호화주택구가 보통강기슭의 성스러운 터전우에 일떠섰다.

편 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최일선, 승 룡





승리의 신심과 굳센 의지를 간직하고 올해의 투쟁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위한 상반년도투쟁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성과들을 장려, 확대하고 결점들을 극복하며 올해에 내세운 방대한 과제들을 완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실행담보를 적시에 보강하는것과 함께 전당, 전민을 다시한번 각성시키고 궐기시키는데 이번 전원회의소집의 목적과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1(2022)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사회를 위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원회의소집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조직문제

2.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3. 현 비상방역상황관리와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

4.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첫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서는 둘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올해 상반년기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수행을 위해 투쟁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많은 난제들과 위기상황을 완강하게 극복하면서 국가사업전반에서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한데 대하여 언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경제정책집행을 위한 상반년도 국가사업진행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동지가 올해 농사실태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보고들을 청취, 분석하고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둘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먼저 지난 6개월간 국가정치활동과 관리, 국가의 발전과 위기대응관리측면에서 거둔 진일보의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력과 정책에 대한 전체 인민의 확고한 믿음이 더욱 공고화된것이야말로 그 어떤 물질적재부와도 대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치적성과이라고 평가하시고 모든 국사를 성공에로 령도하여 각 방면에서의 더 빠른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나갈 당중앙위원회의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원회의를 계기로 경제지도관리에서 새로운 변침점을 마련하여야 할 긴요성을 밝히시고 하반년도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과업을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점에서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을 마치시면서 인민경제계획수행이자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고 헌신적복무임을 명심하고 모든것을 총집중하여 뜻깊은 올해의 계획들을 빛나게 완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현 비상방역상황관리와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악성전염병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국가의 방역능력, 위기대응능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인 방략들이 명시된 보고를 하시였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한길로 끝까지 나아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결론에서 농사와 소비품 생산을 올해 경제과업들중 급선무로 제기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고비를 거쳐 봉쇄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급선무는 방역사업에 내재하고있는 결점들과 페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나라의 방역능력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면한 방역위기를 성과적으로 타개하는것과 함께 국가방역능력건설을 동시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과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2022년도 투쟁과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안을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전원회의는 종합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일부 조정함에 대하여》와 셋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국가방역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넷째 의정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수립된 전진적이며 혁신적인 계획들은 류례없는 국난속에서 사소한 주저도 없이 당과 혁명의 요구앞에 용감히 나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자신심의 충만이고 충천한 용기이며 굳센 의지의 발현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그들을 통하여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전투적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대한 과업은 우리 인민이 당과 정부앞에 내린 지상의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책무를 무겁게 새겨안고 전진하는 대오의 진두에 서서 사회주의건설과 방역대전의 두 전선에서 혁혁한 승리를 획득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종합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일부 조정함에 대하여》와 셋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국가방역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에서는 당규률건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선결적인 중대과업, 중요로선으로 내세우고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당정치활동에서 혁명성과 전투성을 제고하며 당의 역할과 풍모를 세련시키고 개선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중요한 전략적 당건설사상이 천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주요당사업문제 토의를 위하여 6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당면활동과 당건설에서 나서는 주요과업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중요하게 당안에 강한 규률준수기풍을 세우고 불건전하고 비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적당의 본성과 사명과 임무 즉 본태가 철저히 계승되고 사회주의집권당의 전투적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전당의 당조직안에 높은 정치성과 투쟁기풍, 혁명적인 작풍과 공산주의적도덕품행을 장려하고 배양시키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규약 및 당규률준수기풍과 당의 로선과 방침집행정형, 건전한 작풍구현과 도덕생활정형에 대한 감독사업체계와 시정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것이 필수불가결의 선결과업으로 나선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규률건설에 관한 총비서동지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당사업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대책들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당의 검열지도사업을 개선하고 당내부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중요문제들도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가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동지와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과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국방성 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방청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제를 늘일데 대한 문제를 심의결정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병철동지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당의 군사로선과 주요국방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방위력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요구하는 수준에로 급속히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핵적인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되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혁명적군건설로선과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과업들이 강조되고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견지하여야 할 제반 원칙들이 천명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를 지도하시면서 혁명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시련을 강의한 의지와 단호한 결단으로 헤쳐야 하는 오늘의 투쟁은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강력한 보루인 조선인민군의 절대적힘과 군사기술적강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향상시켜나갈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군력강화의 명확한 실천행동지침들이 책정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계기로 전군이 당중앙의 군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기도를 받들고 들고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짐으로써 위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의 모든 군사정치활동에서 견지할 중요원칙들에 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군이 당중앙의 군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기도를 받들고 들고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짐으로써 위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강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가 6월 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비서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장들과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부부장들이 방청하였다.

회의에서는 각급 당지도기관들의 사업체계를 개선정비하고 정치활동들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중앙위원회 일부 부서 기구를 고칠데 대한 문제, 각 도당위원회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내올데 대한 문제, 당총무사업규정과 기요관리체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보위, 안전, 사법, 검찰부문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강화하며 당면하여 올해중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할데 대한 문제, 각급 당조직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사업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새로운 학습제도를 세울데 대한 문제, 전당적으로 근로단체사업을 중시하고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한 당사업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의 임무와 당면과업, 전당적으로 당정치활동에서 견지할 주요원칙과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급성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전하시면서 지원약품들을 해주시당위원회에 보내주며 시당위원회가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대상세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서초급당위원회들과 당세포들에서 해주시와 강령군일대에서 발생한 전염병치료에 필요한 약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다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급성장내성전염병의진자들에 대한 격리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전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역학조사와 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확진하며 발병지역에 대한 소독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는것과 함께 해당지역의 보건기관들에서 극진한 정성으로 환자들에 대한 집중치료사업을 잘함으로써 전염병을 하루속히 근절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고락을 함께 나누는 당중앙의 육친의 정이 어린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안은 해주시의 인민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주신 천리마운동의 봉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진행된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였다.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1리는 약 393m)씩 달리는 준마라는 의미이다.

그 전설속의 천리마가 조선의 발전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1950년대후반기에 일어난 거창한 대중운동을 상징하여 천리마운동으로 온 나라에 타번져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적과 변혁을 안아왔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천리마운동을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결부시키면서 조선을 《천리마조선》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5(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강철증산에 떨쳐나선 강선제강소(당시)의 용해공들

전체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의 모습을 더욱 사무치게 그리는 7월이 왔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데다가 제국주의자들과 항시적인 대결상태에 있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커다란 기적과 위훈을 떨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던 주체45(1956)년의 12월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시고 로동계급의 심장에 불을 지펴 혁명적대고조의 시대, 천리마시대를 안아오신 사실이 그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이해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제강소에서 계획보다 1만t의 강재를 더 생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12월 28일 현지에 나오실 당시까지도 제강소에서는 신통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제강소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8(1959)년 2월

그이께서는 우리는 강재가 모자라 더 만들수 있는 기계도 만들지 못하고있으며 더 건설할수 있는 집과 공장도 건설하지 못하고있다, 기계공업부문 로동자들은 강재만 많이 보내주면 자기들에게 맡겨진 다음해 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하겠다고 한다,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에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다음해에 강재를 계획보다 1만t 더 생산할것을 호소하였다고 터놓으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를 1만t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호소를 접한 제강소로동계급의 심장은 쇠물마냥 끓어번졌다.

그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였으며 기술혁신을 하여 강재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켰다. 하여 년산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천리마대진군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든 강선로동계급의 성과에 뒤를 이어 전국의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대고조를 일으켜나갔다.

그 과정에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발단되였다. 온 나라에 전설의 천리마가 나래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다.

그후 조선을 방문한 외국의 한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제강소의 한 작업반장은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들에게 터놓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에서 난생처음 인간다운 믿음을 받아안았다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저 떨쳐나선것이 다름아닌 천리마운동의 출발점이였다고 감회깊이 회상하였다.

한 로동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맨주먹밖에 없는 자기들을 찾아주시고 국사를 의논해주실 때 정말로 우리들을 믿어주신다는 꿈같은 현실에 막 눈물이 쏟아질것만같았다고 토로하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년산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강선은 천리마대진군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든 력사의 고장으로 되였다.





천리마작업반을 쟁취하기 위한 궐기모임에 참가한 진응원작업반원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강선제강소의 진응원작업반은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면서 학습과 생활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적미풍을 발휘하여 주체48(1959)년 3월 첫 천리마작업반의 영예를 지니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인 진응원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9(1960)년 10월





강선제강소에서 타오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온 나라에 급속히 확대되였다.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과 놀라운 속도가 창조되였다.



주체47(1958)년 기양의 로동계급은 기술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35일만에 첫 《천리마》호뜨락또르를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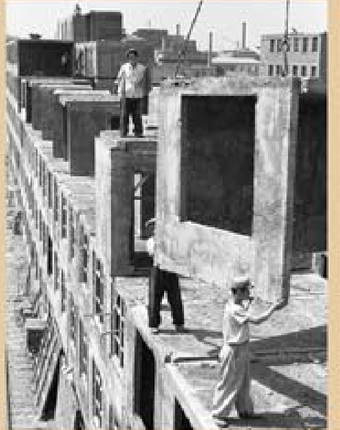


주체47(1958)년 덕천의 로동계급은 빈터에서 불과 40일만에 《승리-58》형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철길건설자들은 200여리에 달하는 해주-하성사이넓은 철길부설공사를 단 75일동안에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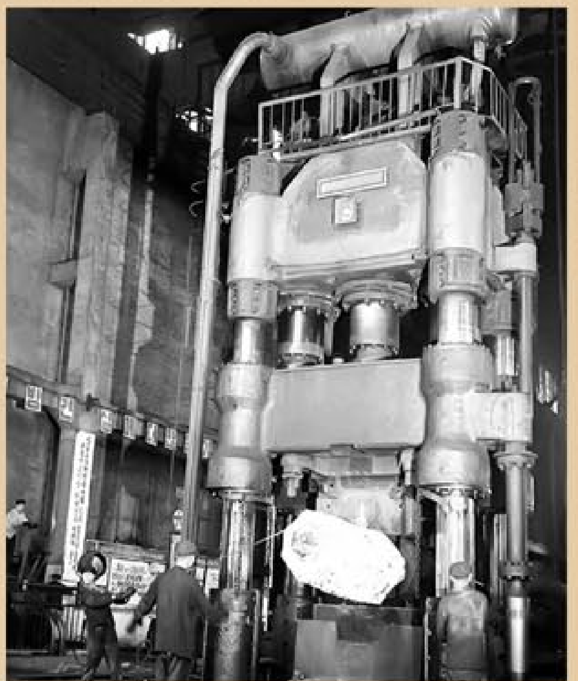




수도건설자들은 천리마대고조시기 7,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으로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단 한해사이에 건설하는 평양속도를 창조하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천리마》호굴착기를 만들어냈다.



룡성의 로동계급은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3000t프레스를 제작하였다.



서평양철도공장(당시)의 로동계급은 주체50(1961)년 자체의 힘으로 첫 《붉은기》호전기기관차를 만들어냈다.

대중을 발동하는 뛰여난 능력은 력사에 이름을 남긴 출중한 정치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특질이다.

그러나 령도의 성격으로 보나, 그 기간과 포괄범위, 심도로 보나 위대한 수령님의 대중동원력에 견줄만한 위인은 그 어느 시기, 그 어디에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창조된 대중운동들은 오늘도 대를 이어 발휘되는 조선인민의 거대한 힘과 더불어 력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글 최광호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전하며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

풍치수려한 평양의 보통강반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자리잡고있다.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념관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는 주체102(2013)년 7월에 개관되였다.

건축미학적,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꾸려진 기념관의 총부지면적은 9만 3, 000㎡에 달한다.

기념관의 중앙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색조각립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기념관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업적을 조국해방전쟁의 매 작전단계와 시기별로 력사주의적원칙에서 훌륭하게 보여주고있다.



중앙홀



기념관은 조선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전세대의 영웅정신을 새겨주는 교양거점이다.

전시관들과 전시실들마다에 있는 전쟁시기의 사실자료들과 전투기술기재들, 인민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투쟁모습과 생활을 보여주는 사판, 반경화, 랍상, 사진자료등은 당시의 상황과 함께 조국방위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무비의 위훈을 생동하고 감명깊게 전하고 전쟁도발자인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책동과 만행, 패전상도 낱낱이 폭로하고있다.

기념관에는 주체조선의 백전백승의 력사의 시원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였는가를 알게 하는 항일무장투쟁관과 해방후 조선인민군의 창건과정을 보여주는 정규무력건설관이 있다.

그리고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반제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무력령도관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기념관에는 공훈무기전시장과 로획무기전시장으로 구분된 야외무기전시장도 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기념비적건축물의 품격에 어울리게 건축의 모든 공간과 요소들이 웅장하고 특색있게 조형화, 예술화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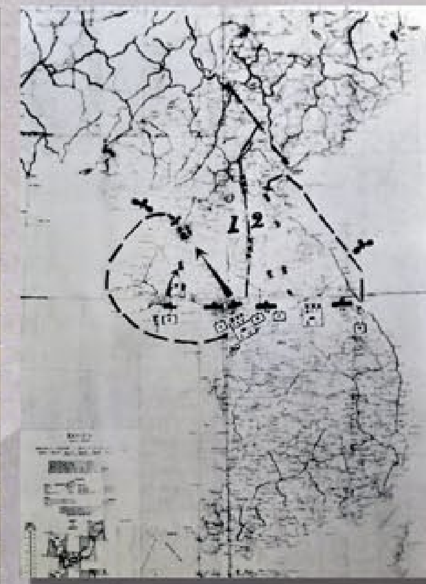
본관바깥벽에는 대형모자이크벽화들인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와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발휘된 조선인민의 투쟁위훈을 반영한 부각장식판들, 수많은 조각군상들이 형상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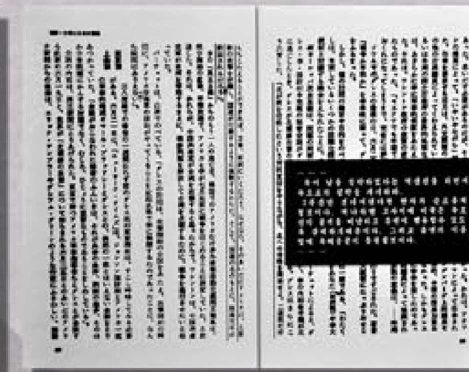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물, 혁명사적자료들,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미제의 전쟁도발관에는 미제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침략전쟁을 도발한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미제침략자들이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침략전쟁계획도



미국무성 고문이였던 덜레스가 리승만괴뢰역도에게 북침을 개시할것을 부추기고 차후 유엔을 도용하여 조선전쟁에 미군의 개입을 약속하는 밀담내용을 공개한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 일문판중에서



당시 남조선괴뢰군이 북진열을 고취하며 진지에 써놓은 선동글 《오늘은 38선, 래일은 평양》



1950년 6월 18일 38° 선일대의 참호에까지 나타나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계획을 최종검토하고있는 미제의 전쟁광신자 덜레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선시찰을 하실 때
리용하신 승용차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된지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괴뢰《중앙청》에 공화국기를 휘날린
조선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위훈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반경화





월미도방위자들이 적함에 명중탄을 안기던 76㎜해안포와 포조준경



새로운 전투계선으로 진출하고있는
전투원들



새로 편성된 부대군인들

새로운 반공격



군종, 병종, 전문병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싸운 인민군용사들의 위훈을 전하는 사진자료들



한치의 땅도 침략자들에게 내여줄수 없다는 견결한 조국수호정신을 안고 용감히 싸운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위훈을 전하는 1211고지방어전투반경화



공화국영웅홀



1951년 10월 30일 1211고지 무명고지습격전투에서 18살 청춘의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고 전투승리를 보장한 공화국영웅 리수복을 형상한 조각



1951년 4월 902. 4고지전투때 두팔에 심한 중상을 입었으나 최후의 순간까지 턱으로 중기관총의 압철을 눌러 450여명의 적들을 소멸하고 고지를 지켜낸 공화국영웅 조군실을 형상한 조각



1951년 2월 감악봉전투때 두팔과 두다리에 심한 중상을 입자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에 굴러들어가 적을 무리로 쓸어눕힌 공화국영웅 강호영을 형상한 조각

보통강을 가로지르며 건설된 기념관의 본관과 대전해방작전관을 련결하는 통로와 다리도 독특한 건축미를 보여주고있다.

기념관의 정면에는 품위있게 개건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이 거연히 솟아있다.

기념탑문주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현판이 모셔져있다.

공화국기발을 높이 쳐들고 진격에로 부르는 인민군전사의 기세찬 모습으로 형상된 기념탑의 중심주제조각 승리상의 대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필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가 새겨져있다.

부주제군상들과 잘 어울리게 꾸려진 교양마당에는 분수들이 설치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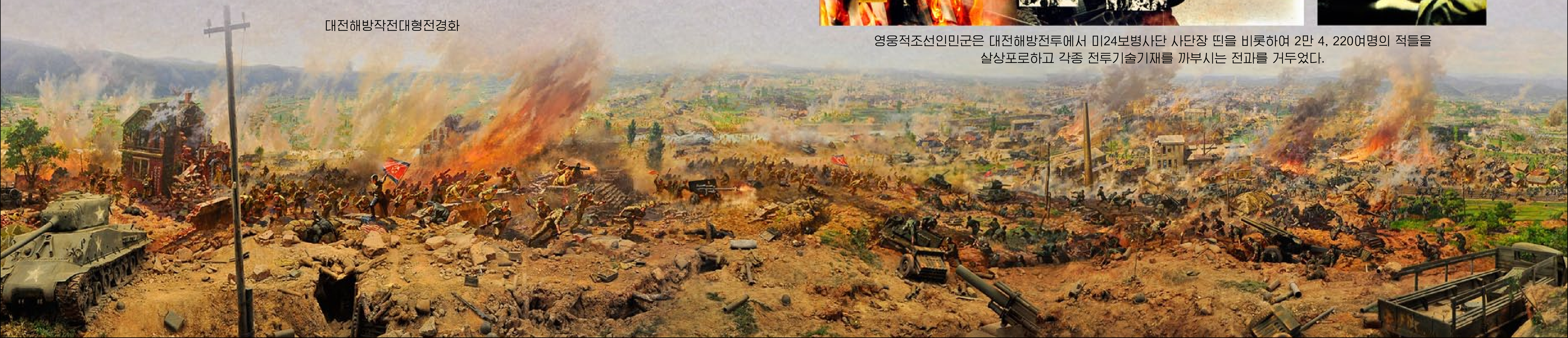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롭게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고귀한 승리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글 박병훈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대전해방전투에서 미24보병사단 사단장 띤을 비롯하여 2만 4, 220여명의 적들을 살상포로하고 각종 전투기술기재를 까부시는 전과를 거두었다.



대전해방작전대형전경화



로획무기전시장에는 전쟁시기와 전후시기 전투들에서 파괴하였거나 로획한 적의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의 일부가 전시되여있다.

보통강에는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의 교훈을 망각하고 공화국령해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1968년 1월 23일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전시되여있다.



전쟁승리에 이바지한 방송원들

조국해방전쟁사에는 방송마이크를 강력한 전투무기로 틀어쥐고 침략자들과 싸우는 조선의 목소리를 온 세상에 전하며 전쟁승리에 이바지한 전시방송원들도 있다.

전쟁은 총과 대포로만 하는것이 아니다.

자기것에 대한 사랑,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로 피를 끓이며 화선의 군인들과 더불어 1950년대의 위대한 전승의 날을 힘껏 당겨온 수호자들의 대오에는 방송마이크를 무기로 틀어쥔 방송원들도 서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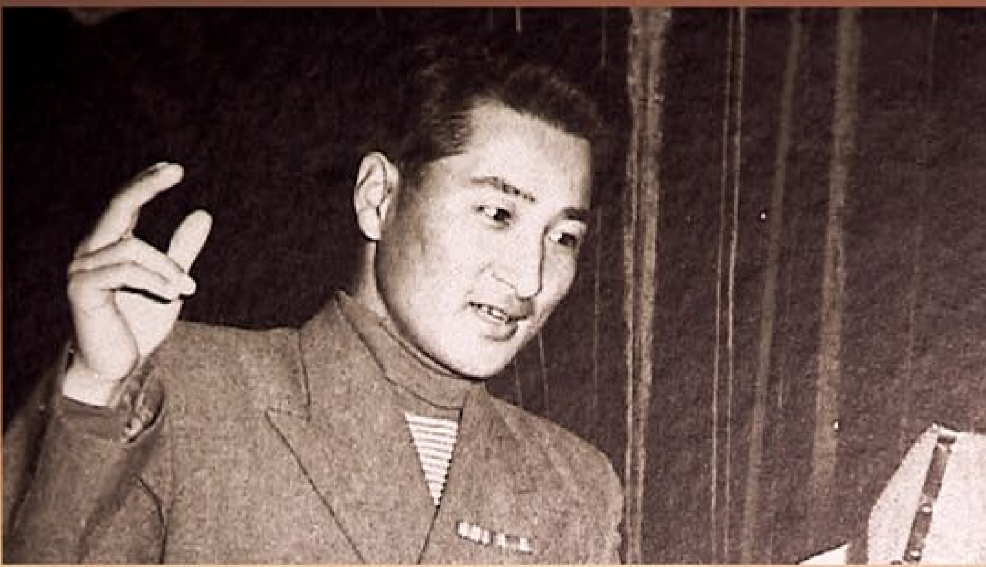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인민방송원이였던 리상벽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력침공으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이 발발한 초기부터 종군방송원으로 활약하였다.

전쟁개시 3일만에 해방된 서울에 도착하여 방송마이크를 들고 서울해방에 즈음하여 전국의 인민들과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에게 보내신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을 전하던 당시 그의 나이는 26살이였다.

1950년 가을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도 리상벽, 리정남을 비롯한 방송원들은 인민들과 인민군전사들이 불굴의 신념을 지니고 조국의 촌토를 지켜 싸우도록 고무추동하는 방송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의 보도를 전하는 그들의 힘찬 목소리는 미제국주의를 두목으로 하는 무력침범자들과 맞서

방송원 리상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울시 해방에 즈음하여 전국인민들과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에게 보내시는 축하문을 서울방송국에서 흥분에 넘쳐 방송하였다. 당시 그는 26살이였다.


리상벽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원이였던 리상벽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방송원으로 전쟁 전 기간 화선마이크를 틀어쥐고 최고사령부 보도를 보장하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영웅적으로 싸우는 조선인민의 숨결이 되여 온 세상에 울려퍼졌다.

인민군전사들과 후방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백배해주는 최고사령부의 보도는 아침에도 울리고 저녁에도 울렸다.

인민군대의 재진격에 의하여 해방된 평양소식을 온 나라에 알린 방송원 리정영, 적극적인 대적방송으로 적들을 혼비백산케 한 처녀방송원 백정선의 위훈도 조국해방전쟁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인민방송원 전금선, 그는 주체41(1952)년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비롯한 중대방송을 많이 한 전시공로자이다. 풍부한 성량과 개성있는 화술로써 그는 싸우는 군인들과 후방인민들에게 무적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이밖에 박정모, 김옥환, 방을망, 조춘연도 화선마이크를 틀어잡고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주체42(1953)년 7월 27일 조선중앙방송은 드디여 전승의 보도를 온 세계에 전하였다.

전승의 그날로부터 근 70년세월이 흘렀어도 줄기찬 방송활동으로 전체 인민을 승리의 길로 고무한 전시 방송원들의 공적은 길이 전해지고있다.

글 박의철



방송원들의 힘있는 목소리는 싸우는 인민군용사들과 후방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조선인민군은 전쟁이 개시된지 3일만인 주체39(1950)년 6월 28일 서울을 해방하였다.








전금선(오른쪽)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원이였던 전금선은 최고사령부보도와 중대방송을 보장하였다.





적들의 폭격속에서도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켜 싸우도록 고무추동하는 전시방송을 중단없이 보장한 리정남(우), 리정영(아래)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전투성과를 알리는 방송원들의 힘있는 방송을 듣고있는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



백정선

《5중대 용사들이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승리의 보고를 기다리신다.
고향의 부모처자들이,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용감히 돌격하라.
15분, 15분을 쟁취하자.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주체42(1953)년 6월초 351고지공격전투에 참가한 인민군용사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하여 방송한 백정선의 방송원고중에서



박정모



김옥환



방을망



조춘연



수호자의 경례, 인민의 뜨거운 인사

인민사수전의 일선참호를 굳건히 지켜선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악성비루스격퇴전에 전격진입한 때로부터 50여일이 흘렀다.

인민군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의 신뢰심과 불변의 믿음은 더욱 강렬해지고 가정들에는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받들어 수도의 악성비루스격퇴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인민의 아들딸, 인민의 행복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가고있다.

지난 5월중순 당중앙의 특별명령을 받들고 수도에 조성된 보건위기를 제압하기 위한 방역전에 전격진입한 인민군군의들은 당의 은정이 깃든 약품들에 대한 보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방역형세에 맞게 주민지구별, 세대별, 개인별로 의약품공급을 구체화하고있다.

하루 24시간 약국들을 지켜서서 사람들이 한밤에 와도 친절하게 상담을 나누고 효과적인 의료상방조를 주는것은 물론 때없이 담당지구의 환자들을 찾아가 적극적인 치료전투도 벌리고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며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시민들은 의약품과 함께 커다란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있다.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떨쳐나선 수호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찬사의 목소리가 생기와 활력을 되찾은 수도의 거리들과 가정들에서 매일같이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박의철



수도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 건강을 결사수호하기 위한 방역대전에서 인민의 수호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는 군의부문 전투원들





방역대전의 날과 날이 흐르는 속에 군대와 인민의 혈연의 정은 더욱 두터워졌다.

주체111(2022)년 4월 수도중심부의 명당자리에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새로 완공되여 일떠섰다.

경루동의 주인들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새 주택구가 형성되여 보통강반의 풍치수려함을 더해주고있다.

다락식, 다층, 소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여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와 함께 실용성과 편리성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다락식주택구가 건설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건설의 본보기가 창조되였다.

지난 4월 수도의 각 부문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별천지같이 꾸려진 이곳 중구역 경루동에 입사하였다.

근로의 땀방울과 애국의 량심을 천만금보다 귀중히 여기며 근면한 노력으로 당과 국가를 받들어가는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제일먼저 누리게 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정책이 또 하나의 현실로 펼쳐진것이다.

지난 시기 이곳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저택이 자리잡고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곳에 인민들을 위한 살림집을 일떠세우실 용단을 내리시였다.

한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240여매의 설계도면들을 보아주시면서 하나하나 품들여 완성시켜주시고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여 세심히 지도하여주신 그이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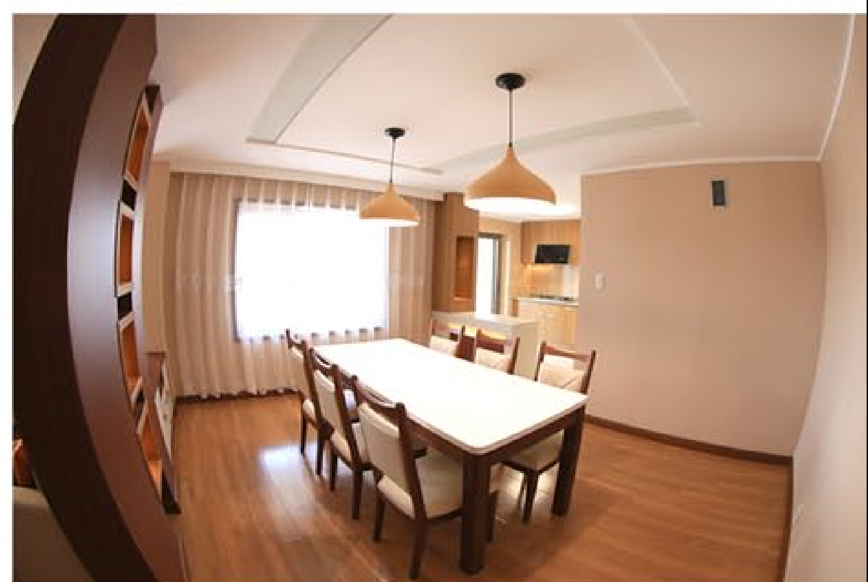
진정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의 전 과정은 군인건설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받들어 인민을 위한 일에 어떤 정신과 정성을 고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한 나날이였다.

준공식에도 참석하시여 새집의 주인들을 축하해주시며 오늘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그 뜰안에 애국자, 공로자들의 행복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것이라고,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으신것같아 정말 기뻐하실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자하신 영상은 온 나라 인민모두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으로 뜨겁게 안겨들었다.

하기에 경루동의 주인들은 끝없이 솟구치는 격정과 환희를 이루 다 형용하지 못하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강수정





평양화력발전소 로동자 심준일

200여㎡나 되는 넓다란 집에서 우리 가족 3명이 살고있습니다.

새집에 오니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공훈직포공
리명순

우리 집 문패에는 남편이름이 아니라 저의 이름이 새겨져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란 누가 보기에도 평범한 직기를 돌리는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저를 공훈직포공으로,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고 이렇게 훌륭한 집까지 안겨주었습니다.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공훈자동차운전사부부
최홍기, 허명금

밤에도 쉬이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집세간까지 갖추어진 새집에 오니 마치 첫 살림을 폈을 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에 도취되여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할가봐 걱정입니다.



만경대구역인민위원회 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김영남

우리 집가까이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저택에서 몸소 심고 가꾸신 한그루의 수삼나무가 있습니다.

그 수삼나무의 푸른 잎새들이 설레는 소리는 새 집이 마음에 드는가 다정히 물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이의 음성이런듯싶습니다.









중구역원림사업소 로동자 김영순

5칸짜리 집을 모래 한삽 뜨지도 않고 받아안자니 정말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건설자인 남편은 대를 이어도 다 못갚을 은덕을 받아안았다고, 나이가 들어 집에 들어와서도 저의 일을 도우면서 계속 일하겠다고 한답니다.



중앙동물원 로동자 김련희

친척들은 물론 직장동무들과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도 저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 축하를 해주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해합니다.

우리가 사는 새집이 정말 좋습니다.

보통강반의 새 풍경



중구역도로시설관리소 로동자 최순희

30대에 남편을 따라 지방에서 수도 평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나라에서 안겨준 3칸짜리 집에서 세 자식을 키웠는데 오늘은 내 손주들이 이 호화주택에서 자라게 되였습니다.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 공훈기관사 김용일

건설이 한창일 때 이 주변을 지나치면서 나라에서 나같은 근로자들을 위해 정말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는구나 하고 느낀적이 있었지만 다름아닌 내가 여기서 살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평양의 초고층살림집들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기슭을 따라 시원스럽게 뻗어간 미래과학자거리에 53층살림집이 있다.

이 거리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53층살림집은 원자핵의 둘레를 도는 전자의 자리길을 련상시키는 독특한 형태미와 조형미를 갖춘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특별히 모으고있다.

53층살림집은 주체104(2015)년에 완공되였다.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주체106(2017)년에 완공된 려명거리에는 여러동의 초고층살림집들이 있다.

연건평이 12만여㎡에 달하는 70층살림집을 비롯한 모든 초고층살림집의 주인들은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육자들이다.

나란히 선 70층살림집과 55층살림집을 련결하고있는 기단층에는 거리의 상업봉사시설들을 대표하는 종합상업구가 있다.



주체111(2022)년 4월에 완공되여 동평양의 송신, 송화지구에 천지개벽을 펼친 송화거리에 80층살림집이 거연히 솟아있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 멀리서 가까이로 다가갈수록 우람찬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란하게 하는 초고층살림집이 우에서 내리볼 때는 활짝 피여난 하나의 꽃송이인듯싶다. 연건평이 16만여㎡인 80층살림집의 세대수는 근 900세대에 달한다.



화보
【오늘의 조선】
흥성이는 상업봉사기지



누구나 즐겨찾습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광복지구 상업중심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매일 손님들이 붐비는 곳은 수도와 각 도들에서 생산된 다종다양한 식료품들, 갖가지 신선한 수산물과 과일, 남새류들이 진렬되여있는 1층의 여러 매대들이다. 대체로 녀성들이 많은데 비단 팔골, 당상 등 주변지역의 주민들만이 아니다.

만경대구역 축전1동의 한 가정주부는 《사고싶은 물품을 꼭 살수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상품을 고르는 재미도 있어서 이곳에 자꾸만 오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식료품매대의 맞은켠에 위치한 화장품매대나 꽃매대 등에서는 도리여 남성들의 모습이 더 많이 띄운다.

《은하수》, 《봄향기》, 《금강산》 등 명상표를 단 화장품들이 그쯘히 진렬된 매대에서 여러 제품들을 척척 선택하는것은 모름지기 사랑하는 안해나 애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일것이다.

넓은 공간을 꽉 채운 지은옷들과 가정용품, 기념품 등이 손님들을 기다리는 2층의 여러 매대들에 펼쳐지는 광경도 볼만하다.

제품의 색갈이며 형태 등을 선택하기 어려우면 어느때 보나 친절한 봉사원들의 의견이나 제의를 받으면 된다.

흥성이는 상업봉사기지

3층에는 식당이 있다.
수백명을 한번에 수용할수 있는 이곳에서 손님들은 료리사들의 조리모습도 보고 그들이 금시 만든 각종 료리도 맛보며 유쾌한 시간을 보낼수 있다.
인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광복지구상업중심의 봉사자들과 더불어 이곳의 인기는 계속 높아가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강수정

통졸임
Canned Foods





산촌에 울리는 배고동소리



량강도나 자강도 등의 산골군들에 가면 리소재지마다에 있는 학교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둔 마을들의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여러 통학수단들을 볼수 있다.

자강도 동신군의 여러 산골마을 학생들은 통학배를 타고 학교로 오가고있다.

10여년전 대규모의 희천발전소건설이 시작되면서 군안의 여러 리들과 병원, 학교 등 기관, 기업소들이 새 위치로 자리를 옮기게 되였다.

언제가 일떠서고 전력생산용 물잡이로 군의 동서방향으로 흐르던 청천강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동관리뿐아니라 경흥리를 비롯한 여러 리들이 커다란 인공호수를 끼게 되였던것이다.

이전의 도로들이 물에 잠기게 되였을 때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부모들보다 먼저 수배로 늘어나게 될 이곳 학생들의 통학길을 념려하였다.

나라에서는 호수에 학생들의 통학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통학배를 띄워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때부터 산골마을 아이들의 통학길은 더욱 즐겁고 랑만적인것으로 되였다.

호안에는 동관고급중학교와 경흥고급중학교 그리고 2개의 분교가 있는데 현재 백수십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배를 타고 학교로 오가고있다.

아침이면 호수가의 유정한 정서가 비낀 마을들에 있는 부두들은 책가방을 메고 앞다투며 통학배로 오르는 학생들로 떠들썩하다.

비록 한두명의 학생이 있는 곳에도 통학배가 가닿도록 부두가 꾸려져있다.

2년전 나라에서는 이곳 아이들을 위하여 새 통학배들을 건조하여 띄우도록 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고마운 국가적혜택속에 씩씩하게 자라는 고향마을 아이들이 리용하는 통학배를 볼 때마다 누구나 손저어주군 한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호수가에 자리잡고있는 학교들에서 공부하고있는 백수십명의 학생들이 통학배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있다.

한두명의 학생이 사는 곳이라도 통학배가 가닿는 부두가 있다.







더 많은 나무모 생산을 위하여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정보화수준을 높이고있는 함경북도양묘장을 찾아서

함경북도 경성군의 중평지구에 3년전 12월 중평남새온실농장과 함께 준공된 함경북도양묘장이 자리잡고있다.

수십정보의 부지에 여러동의 현대적인 수지경관온실과 야외재배장, 채종구, 원형삽목장 등이 있는 양묘장에는 종자선별 및 파종장, 나무모저장고를 비롯한 시설들도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지금 양묘장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도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있다.

그들은 나무모생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와 경기질, 팽화질석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료, 각종 소농기구를 원만히 갖추고 생산활동을 다그치고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구축된 통합생산체계의 운영을 실속있게 하는것과 함께 자동화된 설비들의 점검과 관리를 빈틈없이 하고 가동률을 높여 온도와 습도, 해비침률을 비롯한 나무모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자연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내밀고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현장을 빠짐없이 밟으며 제기될수 있는 문제를 포착하는 즉시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특히 대부분의 나무모가 자라는 야외포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면서 해가림발치기를 제때에 하고 물관리의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나무모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다.

양묘장에서는 병해충예찰사업과 나무모영양관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들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올해 상반년에도 나무모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사진 안철룡, 리진혁
글 김선경









평양의 자랑 옥류관

대동강반의 수려한 풍치를 안고 마치 물우에 뜬 큰 유람선같이 들어앉은 옥류관은 주체49(1960)년 8월에 개업하였으며 매일 평균 1만명의 손님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하고있다.

푸른색합각지붕을 떠이고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서있는 수도의 손꼽히는 급양봉사기지인 옥류관은 60여년의 연혁을 가지고있다.

주체49(1960)년 8월에 준공된 옥류관은 당시 연건축면적이 5,000여㎡였다. 그후 여러 차례 개건 및 확장공사를 거치면서 2개의 별관과 료리전문식당, 분식당 등이 새로 일떠섰다.

연회장과 대중식사실 등 각이한 식사실들의 좌석수는 모두 수천석에 달하며 매일 평균 1만명의 손님이 찾아오고있다.

옥류관의 상징적인 음식은 평양랭면이다. 조선사람들 거의나가 민족음식의 첫번째로 꼽는 국수는 품종도 매우 다양한데 그중에서 또 첫번째로 꼽는것이 바로 평양랭면이다.

평양랭면의 력사와 전통을 연연히 이어오는 곳인것으로 하여 평양사람들은 옥류관이자 평양랭면이고 평양랭면이자 곧 옥류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있다.

하기에 어느때부터는 옥류관을 찾아 평양랭면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평양에 왔었다고 하지 말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였다.

옛날의 궁중음식이였다는 어북쟁반국수에서 유래된 고기쟁반국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옥류관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맛본 손님들마다 그 별미를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있다.

옥류관에서 봉사하는 민족료리는 이외에도 수백가지나 된다.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기쁨과 만족을 금치 못하게 하는 주인공들이 바로 수백명에 달하는 이곳의 료리사들이다. 민족료리의 맛과 향취를 살리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바쳐가는 그들에 의해 옥류관에 대한 인기는 계속 높아가고있다.

이곳은 전국의 급양봉사기관들에 료리기술을 보급전파하는 원종장이기도 하다.

사진 황정혁, 방은심
글 김선경



평양랭면은 예로부터 조선민족이 사랑하는 고유한 민족음식으로서 맛있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음식중의 하나이다.











옥류관의 료리전문식당에서는 평양랭면뿐 아니라 자라료리, 철갑상어료리, 메추리료리를 비롯한 수백가지의 료리들을 훌륭히 만들어 봉사하고있다.





대중체육의 산아

신 금 단



희천공작기계공장(당시)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던 때의 신금단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고 생의 자욱을 뚜렷이 아로새긴 조선의 체육인들중에는 륙상선수였던 신금단도 있다.

어려서부터 체육을 즐겨하면서 특히 달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희천공작기계공장(당시) 선반공으로 일하면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였다.

그의 재능은 주체47(1958)년 5월 1일에 진행된 공장적인 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발휘되였다.

이날 100m, 400m달리기경기주로들을 선참으로 나는듯이 달리는 그를 보며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를 계기로 신금단은 이해 가을부터 륙상선수생활을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기초훈련이 약한 부족점을 그는 훈련장들에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는것으로 극복해나갔다.

그해 겨울철에 그는 매일 3시간이상 톱밥주로를 달리며 맹훈련을 하였는데 2월 한달에만도 199㎞를 달렸다.

그가 진행한 훈련방법의 하나는 200m주로를 34～35s동안에 달리는것을 12회 거듭하는것이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이름난 남자륙상선수들의 훈련량보다 더 많은것이였다.

이렇듯 강의한 투지와 인내력으로 몇달후 국내 새 기록을 세운 그는 마침내 주체49(1960)년부터 국제경기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해 7월 이전 쏘련에서 진행된 즈나멘스끼형제상쟁탈 국제륙상경기대회 800m달리기경기에서 첫 금메달을 쟁취하는것과 동시에 세계 새 기록을 세워 륙상계를 놀래웠다.

이어 그는 다음해에 진행된 이 경기대회와 주체52(1963)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진행된 제1차 가네포등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련이어 우승을 하고 세계 새 기록을 세웠다.

1960년대 세계륙상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신금단은 세계 새 기록을 11번이나 세웠으며 국제경기들에서 28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많은 메달을 쟁취하였다.





주체55(1966)년 10월 그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체육인칭호가 수여되였다.

선수생활을 마친 후에도 감독으로서 륙상선수후비육성에 공헌한것으로 하여 주체61(1972)년에는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신금단은 고령이 된 오늘에도 체육과학연구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글 김선명



즈나멘스끼형제상쟁탈 국제륙상경기대회에서 세계 새 기록을 수립한 신금단





선수생활을 마친 후에도 감독으로서 륙상선수후비육성에 공헌한것으로 하여 주체61(1972)년에는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

신금단은 고령이 된 오늘에도 체육과학연구사업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장고춤

민족악기인 장고로 장단을 치면서 추는 장고춤은 그 연원이 오랜 민속무용이다.

장고를 삼국(B.C. 3세기중엽-A.D. 7세기중엽)시기에는 요고라고 하였는데 고구려벽화무덤인 집안다섯무덤의 제4호, 제5호무덤에 이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춤은 농악무의 설장고춤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장고보다 좀 작은 설장고는 지난날 농촌들에서 풍작을 기원하거나 경축하면서 농악무를 출 때 기악성원에 속했던 장고잡이들이 리용하던것이다.

장고잡이들이 설장고의 장단과 함께 어깨를 들썩이고 건드러진 팔동작도 펼치면서 연주집단의 역할을 부각시키던것이 점차 독자적인 춤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장고잡이들이 남성들이였던것으로 하여 초기의 장고춤은 락천적인 남성장고춤이 기본이였다.

그러다가 점차 녀성들에게로 빠르게 파급되였다.

남자들의 춤이 그저 활달하며 시원스럽다면 녀자들의 춤은 그와 함께 부드럽고 우아하며 맵시있는 특징을 더 가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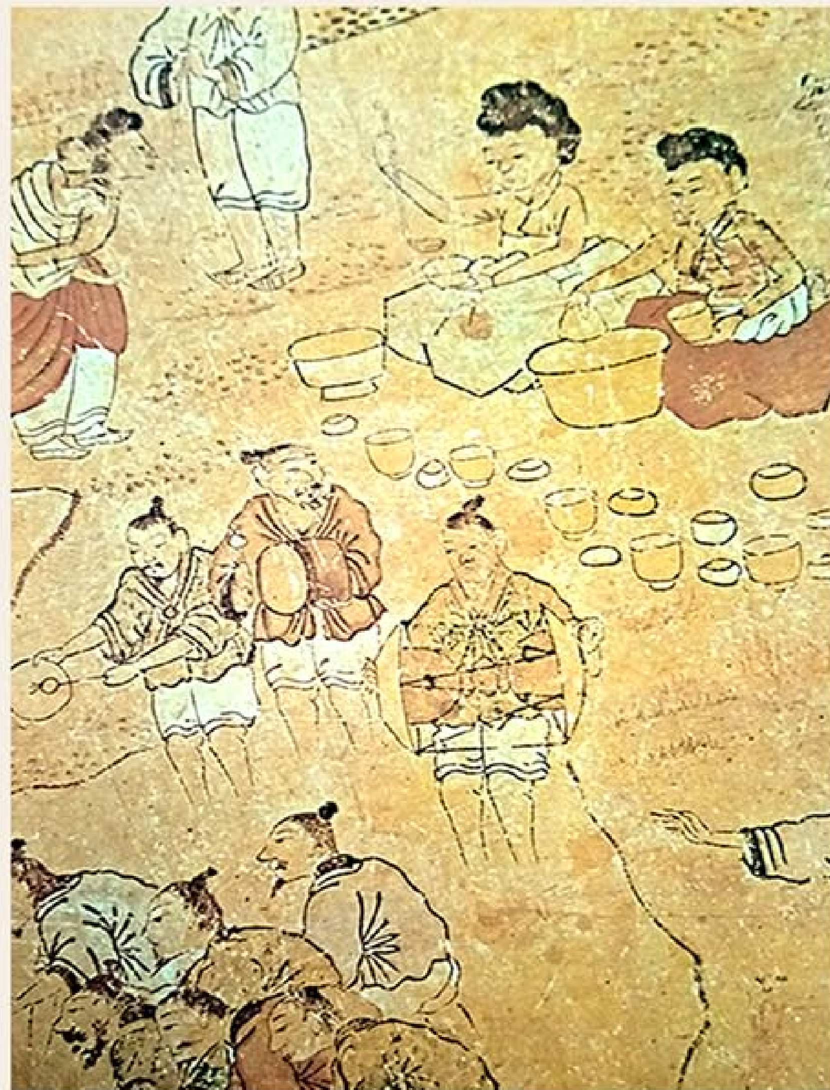
장고춤은 다양한 장고치기와 춤동작들이 조화롭게 결합된것으로 하여 다른 춤들보다 장단성도 강하고 볼멋이 있다.

우리 민족 누구나 사랑하며 널리 추어오는 민속무용-장고춤의 형식과 내용은 국가의 민족유산보존정책에 따라 더욱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다.

독무나 쌍무도 멋있지만 군무로 형상할 때는 더욱 볼만하다.

예술공연무대들에서는 때로 수백명이 출연하는 대군무가 펼쳐져 관중들이 조선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속전통과 정서생활을 한껏 느낄수 있게 하고있다.

사진 방은심
글 강수정


장고춤의 력사를 보여주는 옛 그림들





인민들은 장고춤을 농악무와 함께 널리 추어왔다.



삼국시기 우리 인민들은 장고와 같은 류형의 악기인 요고를 메고 춤을 추었는데 그것은 고구려벽화무덤에 그려진 춤그림을 보면 잘 알수 있다.



장고춤은 독무로도 추고 군무로도 춘다. 독무에서 주인공의 다양한 연주기교와 춤동작이 기본을 이룬다면 군무에서는 서로의 시원스럽고 활달한 동작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것이 기본이다.





능란한 연주기교와 춤동작을 배합한 장고춤



모란봉의 력사유적들



평양성의 일부

수도 평양의 중심으로 흐르는 대동강의 기슭에 기묘한 지형과 수려한 경치로 하여 예로부터 유명한 모란봉이 있다.

금시 피여나는 모란꽃을 방불케 한다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된 이 명산에는 천수백년에 달하는 평양의 발전사와 더불어 전해져오는 유적들도 적지 않다.

조선의 력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B.C. 277년-A.D. 668년)는 5세기전반기에 평양(대성산지구)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6세기 중엽에 현재의 모란봉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둘레가 약 16㎞인 평양성을 새로 건설하였다. 모란봉일대에는 평양성의 궁성인 내성과 그 보위성인 북성이 자리를 잡았다.

오늘 모란봉의 여러 지구에는 당시에 쌓은 성벽들과 함께 을밀대, 최승대, 칠성문, 전금문, 현무문, 동암문, 부벽루 등 여러 옛 건축물들이 보존되여있어 명승지의 풍격을 더욱 돋구고있다.



을밀대

을밀대는 평양성을 처음 쌓으면서 그 내성의 북쪽장대우에 지은 루정인데 1714년에 고쳐지었다. 높이가 약 11m인 축대는 네모나게 다듬은 돌들로 밑부분을 계단모양으로 형성하고 점차 우로 향하면서 안으로 약간 오무라들게 쌓은것으로 하여 보다 더 높아보이고 장중하면서도 안전한 감을 준다.

모란봉의 정점에 쌓은 장대우에 서있는 최승대도 명산의 풍치와 건축물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지은 루정이다.

내성의 북문으로 세워진 칠성문은 고려(918년-1392년)시기에 고쳐짓고 그후에도 여러번 개건되였다. 량쪽 성벽을 10m정도 사이두고 어기도록 쌓고 거기에 성문을 모로 배치하였으며 밖으로 향한 성벽을 더 돌출시켜 옹성으로 삼은것이 특징적이다.

축대는 다듬은 돌들을 정연하게 쌓고 그가운데 무지개문을 냈으며 앞으로는 비탈길을 내였다.

대동강에 뿌리를 박고 솟은 청류벽의 아래쪽에 있는 전금문도 앞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성벽이 서로 어기게 쌓은 짬에 성벽과 직각이 되게 세운 특이한 형식의 성문이다.

고구려시기 평양성의 북쪽성문이였던 현무문은 1714년에 다시 세워졌는데 최승대가 서있는 봉우리와 을밀대가 서있는 봉우리사이의 제일 낮은 지점의 성벽을 어기게 하고 그사이에 성벽과 직각으로 세웠다.





최승대





동암문



청류정



청류벽



칠성문

부벽루는 평양성이 축성되기 전인 393년에 세워진 불교사찰인 영명사의 부속건물인데 대동강반의 청류벽우에 위치하고 주변의 지형과 비상한 조화를 이루고있어 그 경치가 자못 황홀하다.

특히 달이 솟을무렵의 경치가 그지없이 아름답다고 하여 예로부터 평양8경의 하나로 손꼽히였다.

지금의 건물은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때 왜적에 의하여 불탄것을 1614년에 다시 세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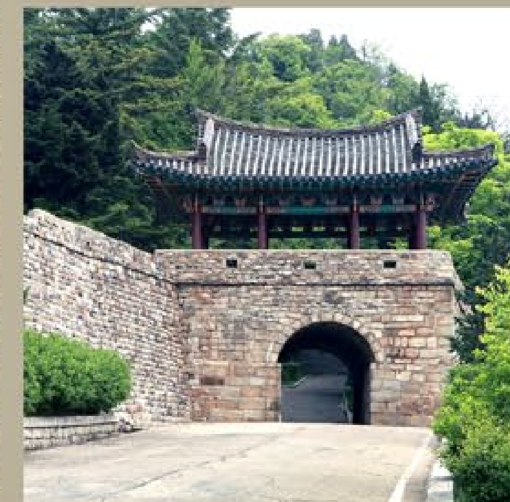
이밖에 영명사터, 8각5층탑 등 민족의 유구한 력사가 체현되여있는 모란봉의 여러 력사유적들도 훌륭히 유지보존되여 참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라평렬
글 박의철

영명사8각5층탑



현무문



전금문



부벽루

13606-2280123



낸 곳: © 조선화보사 2022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